하나님을 실제로 그리워하기

(예레미야 애가 5:1~5)

1.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2.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3.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4.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5.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렀사오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19.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20.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21.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22.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오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을 실제로 그리워하기>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하나님을 실제로 그리워하기'

장자크 루소(Jean-Jacques Rousseau, 1712-1778)의 에밀(Emile)은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근대교육학에 한 획을 긋는 역작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아이를 어른이 되기 위한 준비적인 존재로써 보지 않고 아이자체로 보며 교육학의 대상으로 확립시켰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에밀의 한 구절을 인용하며 말씀을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인생에서 처음 사분의 일은 어떻게 살아야할지 미처 알기도 전에 지나가버리고, 마지막 4분의 일은 능력이 상실된 채로 지나가 버린다. 처음에는 사는 방법을 모르면서 살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되었을 때에는 이미 때가 늦었다. 이 두 양극단 사이에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잠과 일과 그 밖의 온갖 고통에 소요된다. 인생이 짧다는 것은 살아있는 시간이 짧다기보다는 그 기간 동안 인생을 참으로 즐길 시간이 짧다는 것이다.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사이가 아무리 길어도 소용이 없다. 그 동안의 시간을 충실하게 보내지 못한다면 인생은 역시 짧은 것이다."

한 사람의 생애라는 시간을 보는 관점이 독특하고 마음의 공감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말한 루

소의 다른 말들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인생의 시간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쳤는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아이가 나이를 먹을 뿐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철이 없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아이 때에 이미 인간으로써의 모든 구조와 존재 의미가 충족된 상태에서 단지 나이를 먹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할 것입니다. 또 이렇게도 이야기 합니다.
“10세 때에는 과자로 움직이고 20세에는 애인, 30세에는 쾌락, 40세에는 야심, 50세는 식욕에 의해 움직인다. 아! 어느 때가 되어서야 인간은 예지로 움직이게 될 것인가”라고도 했습니다.
시간이 소모되거나 쓸데없이 버려지지 않기 위해서는 참다운 즐거움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즐거움이 없는 시간은 사실 소모되고 낭비되고 있다는 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애 동안 시간의 의미를 찾기 위해 몸부림친 흔적이 역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내린 결론이 다음과 같습니다.
“행복이란 돈이 있고 잘 먹고 소화를 잘 하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너무나 허무합니다. 이것이 과연 자연으로 돌아가기를 주장하며 근대교육학에 한 획을 그었다고 평가받는 장자크 루소의 행복론인지 실망스럽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였습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행복을 생각하는 차원의 깊이가 다르다는 것이 느껴지실 것입니다.
루소의 말이 맞다고 여길 수 있는 부분은 시간의 개념에 대한 부분입니다. 시간의 양이 인생의 길고 짧음을 결정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떠셨는지 공생애 3년을 들여다봅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의 공생애 뒤에 승천하셨지만 그 예수님의 공생애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예언을 통해서 구약시대 전체를 관통하고 있으며 지금도 살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3년이라는 시간은 양적으로 짧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짧은 시간 속에 시간의 바깥에 존재하는 영원함을 담으셨습니다. 3년을 사시는 동안 매일 매 순간을 영원으로 채우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시간이란 그릇과도 같고 만두피와도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만두피라는 시간 속에 영원이라는 만두소를 담으셨던 것입니다. 영원을 담으셨기에 예수님의 공생애는 시간을 초월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3년간의 짧은 시간 속에서 영원은 곧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기 표현이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에게도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인간이 영원을 담는 만두피나 그릇이 되지 못하면 소모되고 낭비될 수밖에 없습니다.
루소가 그렇게 인생의 시간의 의미를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인정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 영원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루소의 주장은 만두소가 없는 만두가 되어버렸습니다. 만둣국을 끓이다보면 속이 터져서 만두피만 남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영원성을 담지 못한 인생은 껍질만 남은 가치 없는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영원성은 단순히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 영원하신 하나님을 담지 못한 인생은 속이 다 빠진 만두피처럼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로부터 우리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라는 인격과 아내라는 인격 속에 영원함이 담겨있지 않다면 부부간의 대화는 인생이 소모되고 있는 것이고 낭비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인격 속에 영원함을 담는다면 부부간에 대화를 하든지 사업장에 나가있든지 장사를 하든지 의미가 생겨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인격에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뜻과 마음을 담아낼 수 없다면 우리의 인격은 찢어져서 속이 빠져나간 만두피와 같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 살고 있는 인격 안에 영원성을 담을 수 있는 방법은 그리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영원성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기계적인 반응이 아닌 인격적인 판단에 기반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리워하지 않는다면 우리 인격에 영원성은 담기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영원성을 향해 다가갈 수는 없습니다. 영원성을 쟁취하거나 획득할 수는 없습니다. 영원성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단지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그리움에 대한 응답으로 영원성의 원천이신 하나님께서 내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정리해봅니다.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과 만나고 지속적으로 영원성을 담는 만두가 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세계를 그리워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영원성은 담기게 됩니다.
이처럼 그리움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중요한데 정작 그리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영원성을 그리워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움에는 대상이 필요한데 영원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대상화시키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그리워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영원보다는 약간 더 구체적이 되었지만 과연 하나님이 그리움의 대상이 되시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신 적이 없는 분이 많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기초와 토대를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인이라면 실제로 하나님을 그리워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격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으며 나의 인격과 하나님이 하나 되는 것도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또 그렇게 될 때에 내 삶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기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장자크 루소가 그렇게 바랐던 참된 삶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대상관계이론가로 분류되는 페어베언(W.R. Fairbairn, 1889-1964)이나 건트립(Harry Guntrip, 1901-1975)과 같은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그리움은 분열성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들의 연구에 의하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대상을 찾고 관계를 맺으려는 기본적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적 언어로 표현하자면 인간은 마음의 공백을 갖도록 지음 받았기 때문에 삶에서 이 공백을 채우고자하는 흡입력을 발동시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대상관계라는 말로써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기가 엄마와 관계를 합니다. 엄마가 아기의 욕구에 맞춰서 대응해줄 때에 아기는 다른 사람을 만나는 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아기의 욕구를 맞춰주지 못한다면 아기는 좌절감과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내면에 환상(avatar)을 만들고 그것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며 살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대상을 향하여 관계를 추구하던 바람이 좌절되는 경험을 통해 어린아이들은 실제 대상이 아니라 내면의 대상을 향해 도피하면서 실제 만남이 이루어지는 사랑보다는 환상에 머무는 그리움의 경향을 띠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심리학자들은 분열성으로 인한 그리움이 커지면 커질수록 현실을 살아가는 힘이 약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생각은 신앙적 관점에서 볼 때에 완전히 오해입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타락한 그리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움은 능력이고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그리워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문제는 이 능력을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리움은 본래 인생이라는 시간과 공간을 사는 동안에 영원성을 그리워하기 위해 주신 능력이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 이후에 이 그리움이 소모되고 낭비되게 되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타락 이전의 상태를 고려하지 못했기에 이것을 분열성이라는 이론으로 밖에는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심리학 이론을 접할 때마다 정답을 제외한 상태에서 답을 구하려는 노력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습니다. 심리학자들에게 구약에 나오는 성전의 구조를 연구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정답을 제외한 상태에서 답을 찾으려하는 무의미한 노력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움이 어떤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마지막 장은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끝이 납니다. 19절에서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라고 영원하심에 대한 그리움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다가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본문은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을 그리워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에 대해 가르쳐줍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정확히 모른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영원성을 그리워할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워한다고 착각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움이 낭비되고 소모되는 상황을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된 미래를 그리워하는 것을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영원성을 향하여 사용하도록 그리움이라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성을 그리워할 방법을 모른 채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 능력을 미래를 향한 그리움으로 소모시키고 낭비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았던 19절에 이어서 20절을 보면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헤어져 있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또 21절 전반절을 보면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향할 수가 없고 단지 그리워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임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서 붙잡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총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21절을 후반절을 보면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옛적이란 나라가 평강했던 다윗 왕의 시대를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지금 처해있는 현실과 옛적의 상태를 비교하는 것이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거리를 측정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옛 시절을 그리워하거나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도 아니고 신앙도 아닙니다. 이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종교로써 타락시키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18절을 보면 앞서 보았던 내용들과는 사뭇 다른 내용이 나타납니다. 앞선 장들에서 예레미야는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키던 참상을 보면서 슬픔과 탄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멸망의 순간이 지난 이후에 유다 땅에 남은 사람들의 고충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시점이 멸망의 순간으로부터 멸망 이후로 옮겨갔다는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1~5절에서는 멸망 이후의 이들의 참상이 잘 드러납니다. 이들의 삶은 치욕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었고, 조상들로부터 분배받은 땅과 집은 모두 이방인들에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마치 아버지 없는 고아와 어머니는 과부처럼 처량하다고 합니다. 이는 어떠한 안전장치도 없는 상황임을 뜻합니다. 또 자신들의 땅에 있는 물조차 은을 주고 마시고 값을 주고 나무를 주워 땔감을 하는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삶의 활동현장에서는 바벨론의 감독관에 의해 학대당하며 노동을 강요받고 있었습니다. 11절에는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라고 하고 13절을 보면 '청년들이 맷돌을 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지다가 엎드러지오며'라고 완전히 노예와 같은 삶을 살고 있음이 나타납니다.
한 마디로 삶 전체가 정신적으로는 치욕을 당하고 자존감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육체적으로도 견뎌내기 어려운 고통들이 하루하루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참기름을 짜내기 위해 깨를 볶고 부수고 으깨듯이 짓눌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깨가 으깨지면 참기름이 나오듯이 삶이 짓눌리자 마음이 세상에서 빠져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빠져나온 마음은 영원성을 향한 그리움을 회복하게 됩니다.
어제 설교에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처한 마음의 모습을 말씀드렸습니다. 가운데 마음이 있고 한쪽에는 하나님과 천국이 있습니다. 반대쪽에는 육체와 육체로 접하는 세상이 있습니다. 기존의 선민들의 마음은 육체를 통해서 세상에 깊이 빠져 들어서 섞여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쥐어짜는 것과 같은 상황이 반복되자 세상과 혼합되어 있던 마음이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지만 마음에는 여전히 공백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 공백을 채우기 위해 세상을 사랑했고 그 결과 세상과 혼합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세상으로부터 빠져나온 마음은 입으로 부르던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나라를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을 발동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로부터 하나님을 그리워 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삶이 쥐어짜듯이 괴로울 때에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쥐어짜는 고통이 필요한 이유는 인간이 타락한 뒤로 마음이 세상과 혼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리움에 대한 능력이 미래의 그리움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리움의 능력이 삶이라는 제한된 시간 속에 존재하는 대상을 향해서 소모되고 낭비되었던 것입니다. 이 그리움을 하늘로 향하기 위해서는 세상과 혼합되어 있는 마음이 참기름을 짜내듯이 분리되어야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이러한 고통에 뛰어들 수도 없으며 감내할 수도 없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모든 고통들의 총집합이며 완성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고통을 우리를 대신하여 받으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고통을 받으시고 죽으셔야만 하는 이유가 없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내게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선민들의 그러한 죄를 깨닫고 애가를 부른 것입니다. 구약성경을 해석할 때에 선민이 당하는 모든 고통

은 주님이 당하실 십자가의 고통의 예표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면 세상과 혼합되어서 한 덩어리가 되어버린 나의 마음이 분리됩니다. 주님의 부활이 의미하는 것은 세상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참기름과 같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이 빠져나온 상태만으로는 아직 하늘에 대한 그리움이 발동되지 않습니다. 그리움의 대상이 구체적으로 체감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에서 머무른다면 마음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다시 세상을 향하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영원성을 구체적으로 체감하기 위해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께서는 삼위일체이십니다. 성부가 성자 안에 계시며 또한 성자 안에 성부가 계심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이 전해지고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이 순간에도 하늘에서는 삼위일체 되심의 끊임없는 인격적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격적 교제에는 사랑이 완성되고 있고 그로인해 기쁨과 만족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리움의 능력을 주신 이유는 이러한 삼위일체의 관계에 지금 참여하여 사위일체를 이루시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마음에서 그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 되심의 과정을 수행하고 계시고 그 과정에서 기쁨과 만족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이 삼위일체의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4위일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 4위일체에 대한 그리움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능력과 축복과 은혜로 허락되었습니다. 삼위일체에 참여하여 사위일체를 이루는 것은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움은 능력이고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영원성을 향해 그리움을 갖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그리움의 능력으로 세상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발전되거나 개선된 상황을 향하고, 다른 사람을 향한 그리움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리움이 소모되고 낭비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원성을 담기 위해서는 깨를 으깨서 참기름을 뽑아내듯이 먼저 세상과 섞인 상태로부터 빠져나와야만 합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육체로 만나는 세상에 대해 죽었음을 고백함으로써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고집스럽게 주장하고 지속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빠져나와 온전해진 마음으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위일체를 이루기를 그리워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실제입니다. 사위일체를 마음으로 바라볼 수 없다면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은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리움의 능력이 세상을 향해 소모되고 낭비된다면 우리의 삶은 속없는 만두피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실제로 그리워하는 것은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로 세상과 얽혀있고 혼합되어 있는 우리의 마음이 참기름처럼 빠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이루어지는 삼위일체에 참여하여 사위일체를 이루기를 그리워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실제 그리움을 발동시키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시는 기적 같은 순간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